화인 맞기에 좋도록 준비된 양심

(딤전4:1~5)

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화인 맞기에 좋도록 준비된 양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화인을 맞는다, 말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화인을 맞은 당사자는 자기가 화인 맞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게 화인 맞은 상태거든요.
본인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 자각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화인 맞음의 무서움이에요.
모르는 채로 화인을 맞고 사는 겁니다.
화인을 맞는다는 것이 옛날의 노예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분명하게 하고 또 이 사람의 신분이 노예라는 것을 영구히 알리기 위해서 쇠막대기로 불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불도장이 찍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런 말이 나오잖습니까?
마귀가 '너는 내꺼다'라고 양심에 불도장을 찍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아,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미혹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고 그걸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화인을 맞은 양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안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을 전해보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의 반열에 낄 수가 있지만, 믿는 사람의 반열에 끼었다고 본인도 믿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런데, 마귀를 따르고 있고 귀신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과 마귀가 그 마음에 불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꺼다 라고 챙겨버린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깁니다.

본문에 '그러나'라고 시작을 해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감독과 집사님을 선출하기 위한 자격이 될 수 있는 덕목을 쭉 말씀하시다가 사도바울이 감탄하기를, 당신이 감독과 집사의 덕목을 나열해놓고 나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 15가지의 덕목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만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경건의 비밀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도 비밀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승천하셨어요.
죽으시고 승천하셨다는 게 비밀인데, 예수님에게 마음을 드리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하늘을 올라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이게 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해서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모든 자들에게 마음이 이 세상에 죽으면서 승천하신 주님 따라 올라가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될 때, 마음이 거기 항상 머물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덕목들이 그렇게 15가지, 6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감독과 집사를 뽑는다는 것은 요즘처럼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부서를 맡아서 결재하는 자들로 뽑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경영하는 이사회 회원으로 뽑은 게 아닙니다.
감독과 집사는 교회 안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자들임이 분명하지만, 그보다 앞서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끊임없이 내 마음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선한싸움을 하게 되면, 바로 감독과 집사와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 하는 복음이 인격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는 그 능력의 산 증인들로서 세우는 겁니다.
'이들을 봐라! 너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마음과 하나님과의 간격을 계속 제거하는 선한싸움을 일로 삼을 때, 15가지 6가지의 덕목을 원래 그랬던 사람들처럼 저렇게 인격 속에 지닐 수 있는 자들로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산 증거들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걸 향해 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선한싸움을 향해서 '나도 감독님처럼 돼야지, 나도 집사님처럼 돼야지! 저렇게 15가지 6가지 덕목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대단한 명상과 수련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단한 극기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러면 내 마음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런 덕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데, 후일에 교회가 안정된 상태로 접어들 때가 올 것이라는 얘기에요, 지금은 교회라는 게 처음 생겼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청년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런 집단이 되게 이상한 집단이에요.
굉장히 어색한 집단이죠, 지금 우리가 기독교를 대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안정되어가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가 존속하게 될 텐데, 그 교회 안에 믿음에서 떠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복음의 능력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마귀와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이것이 양심에 화인을 맞은 증거라 이겁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는 것은 뭡니까?
양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양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지금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화내고 분노하고 다투고 못된 생각을 하고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 자꾸 나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간격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게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귀신의 소유로 불도장이 찍혀버렸습니다.
귀신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영이신 하나님과 내 마음과의 간격을 문제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외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리고 하마르티아, 빗나간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을 일단 부르기 시작했으면 운명적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청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제일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양심입니다.
'내가 아직도 돈을 좋아하고 있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죄성은 살아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마음은 자꾸 돈을 좋아해서 돈이 없으면 걱정이 되고 돈이 있으면 만족해지고, 돈이 조금 더 들어오면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므로 안정감을 느껴야지, 왜 돈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나? 라고 나를 볼 수 있는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하면, '돈 벌어야지, 내가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러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돈을 좋아해서 돈을 벌려고 이를 악물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 상태가 지금 얼마나 극악한 죄의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 놓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마음 안으로 들여놓고 그걸 좋아하고 그것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고 살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것, 이게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잘못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잘못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은 전부 도덕적인 행동의 차원으로만 미뤄놓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들, 그런 것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위한다, 가정을 위한다, 자식들을 위한다, 사업을 위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괜찮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 놓고 하나님 말고 더 앞서서 좋아하는 것들을 담고 그것을 위해 매진해나가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왜 생깁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좋아할 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라고 말하며 금욕주의의 예를 듭니다.
화인 맞은 양심, 하나님과의 거리를 측정하려고 하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마음, 이 마음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중 금욕주의를 예로 듭니다.
금욕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긴다.
그러면 금욕주의는 뭘 좋아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행위를 좋아하는 겁니다.
공짜로 사는 것도 아무나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에덴에서 아담이 처음에 삶의 터전을 얻을 때, 자기의 행위를 통하고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에덴동산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여건을 얻은 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면서 내가 얼굴에 땀을 흘리고 먹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게 내가 의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수고한 만큼 먹는다, 이런 생각 자체가.
그래서 내 행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 행위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도달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더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위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왜 금욕주의가 됩니까? 내 행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행동 하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전에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길을 따라

감으로써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육체를 가지고 무슨 행동함으로써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행위를 강요하는 것, 화인 맞은 양심의 입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에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어느 것도 담으면 안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자와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목숨까지 미워하면 이 세상에서 안 미워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내 목숨까지 미워하는데, 목숨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돈을 안 미워하겠습니까, 예술을 안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다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모든 것이 선하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서로 모순이 되지 않고 맞아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예를 들면 돼요.
미스 김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미스터 박과 미스터 리, 미스터 최가 다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다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도 아까운 거예요.
아니, 젊은 나이 때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찾아도 찾아도 없더니 이제 나이 들어서 결혼하려는데 세 사람이 다 괜찮은 거예요.
놓치기 싫은 사람들이고 다 좋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국 미스터 박을 선택하는 것은 미스터 최나 미스터 리가 악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혼은 한 사람을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제일 먼저 좋아하는 걸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그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내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고, 자식들도 좋고 부모님도 귀하고, 그리고 돈도 좋고 사업도 다 좋은 거예요.
음식이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예술이 좋고 나라가 좋고, 다 좋지요, 다.
근데 내 마음이 제일 먼저 좋아하는 것 하나만 골라야 돼요.
다른 게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만 골라야 되는데,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돌입하려면 어떡해야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만을 골라야 되는데, 타락 이후 우리의 죄성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것들은 선한 것이지만 마음에 끌어들이면 간음이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좋아하므로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 들여놓게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미스터 박을 남편감으로 선택했으면, 미스터 최와 미스터 리는 회사의 동료로서 지내면 좋은 거예요.
근데 미스터 박과 결혼하겠다고 서약해놓고 자꾸 미스터 최와 미스터 리한테도 같은 사랑을 준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게 악한 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스터 최와 미스터 리도 그 사람들이 그냥 동료로서 지내면 선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남편에게 주어야 할 사랑을 요구하고 마치 자기 아내에게 주는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이건 악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에요, 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돈을 마음으로 좋아해버리느냐 이겁니다.
좋아한다는 게 뭐라고 했지요?
그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기쁠 수 있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하고 좋아해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돈은 선한 것이고 감사한 거예요, 적게 주어져도 감사하고 많이 주어져도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돈이 지출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놈의 돈을 하나님보다 먼저 좋아하는 바람에 돈도 더러워지고 내 마음도 더러워지는 겁니다.
다 선한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가 막힌 논리가 있어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감사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먼저 있고, 그러므로 모든 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건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소설가의 글 속에 소설가의 스피릿, 정신이 들어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피릿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집결체가 십자가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영이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효과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쁠 수 있는 유일한 궁극적인 조건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렇게 이 만남을 깨뜨리지 않고 이 연결을 계속 유지시켜나가려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만나 기뻐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 것 어느 것도 내가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결을 끊임없이 해나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계속 붙잡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내 마음을 자꾸 세상에 빼앗기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간격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니까.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 육체적인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진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먼저 끌어들이면 더러워졌던 것들이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쁘게 되니까 내게 주어진 자식도 거룩하고 돈도 거룩하고 다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인격적인 자발성에 의해서 십자가로 화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 양심에 불도장을 찍어 자기 소유로 만드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마귀의 화인을 받기에 유리한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삶에 나가서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계속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같이 죽은 자로 고백함으로써, 틈을 내서 기도하고, 십자가복음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부활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내 마음이 아버지 때문에 생기는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유지해나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될 수 있고, 금욕주의를 예로 들었잖아요, 그렇다고 방임주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기쁨과 만족이 주어질 때, 감독님의 15가지 덕목, 집사님의 6가지 덕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든 율법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과 행동을 지배하시면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십자가 화인을 내가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 의해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독님과 집사님들에게서 요구되는 그런 덕목이, 내가 감독이고 장로님이 아니라도, 내가 집사님이 아니라도 나타나고, 그런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이 안 벌려도 감사합니다, 벌려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없는 게 좋으니까 좋은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지출해야 될 항목이 하나님 안에 정해져 있을 것이고.
이 돈뿐이겠습니까?
모든 게 다 그렇다는 얘깁니다.

화인 맞기에 좋도록 준비된 양심.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생활화하자는 얘기가 지금 태승철이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의 요구입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십자가 화인을 찍음으로써 마귀가 내 양심에 화인을 찍는 일은 죽을 때까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말씀의 총화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응집인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사건을 잊지 않고 그 의미를 생활화함으로써, 마귀의 불도장이 내 삶에 얼씬도 못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